

치 사

청명한 기운을 담은 금풍(金風)에 만산은 홍엽(紅葉)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화롭고 아름다운 절기에 “제1회 조계종학인 외국어 스피치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축하와 격려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한국불교사상 처음으로 외국어 스피치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여겨집니다. 다른 언어를 안다는 것은 그 문화를 아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고,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전세계는 이미 지구촌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도 이러한 지구촌시대에 맞추어 한국불교 세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본교육기관에 표준 교육과정을 시행하여, 학인스님들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필수교과목 또는 선택 과목으로 채택하여 꾸준히 익혀오고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은 한국불교가 세계문화와 교류할 수 있는 전제 조건과 국제적인 자질을 갖추기 위한 유익한 방편입니다. 또한 세계문화에 조응하는데 반석이 되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오늘 쌓아온 실력을 맘껏 펼쳐보이는 것은 한국불교 세계화에 한층 탄력을 주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비추어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더딘 듯하지만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되지 않아 알찬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를 개설하여 영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니, 종단의 교육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인식하게 합니다.

고려의 백운화상은 ‘밝은 달 맑은 바람이 본래부터 내 물건이니, 손당은 대로 가져와 마음껏 쓴다’ 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의 세계문

화와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외국어를 내 물건 쓰듯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마음가짐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선에 올라온 스님들만이 아니라 모든 학인스님들이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정진하고, 본래 가진 모든 것을 내 마음껏 써서 한국불교의 세계화라는 원력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학인 외국어스피치대회’를 위해 진력을 다한 교육원장스님과 소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일선 기본교육기관의 학장스님과 교수스님,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한 학인스님들과 응원한 학인스님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정진이 한국불교 미래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2015)년 10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